

한국 축구, 태국과 리턴매치

오늘 2026 북중미월드컵 2차예선 4차전 원정 경기
수비진 보완은 숙제, 무더위 등이 경기 최대 변수

황선홍호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내일 태국과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 '리턴 매치'를 벌인다.

황선홍 임시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 대표팀은 26일 오후 9시30분(한국시각) 태국 방콕의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에서 태국과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조별리그 C조 4차전 원정 경기를 치른다.

한국은 지난 2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태국과의 3차전 홈 경기에서 손흥민(토트넘)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1-1로 비겼다.

태국전 무승부로 2승1무(승점 7)가 된 한국은 조 선두는 지켰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1위로 한국(22위)보다 몇 수 아래인 태국을 상대로 안방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자존심을 구겼다.

물론 여전히 한국은 다음 라운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2위 태국(승점 4·골 득실 -2), 3위 중국(승점 4·골 득실 -7) 순으로, 한국이 이번 태국 원정

에서 승리하면 3차 예선 진출의 9부 능선을 넘는다.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은 조 2위까지 3차 예선에 오른다.

지난달 끝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우승 실패와 손흥민(토트넘)과 이강인(파리생제르맹)의 물리적 충돌 등으로 어수선해진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승리가 필요했지만, 결과는 아쉬웠다.

하지만 이강인의 사과 후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하나로 뭉치는 모습을 보인 건 긍정적이었다.

손흥민은 A매치 124번째 경기에서 45호골을 터뜨렸고, 하극상으로 비판 받았던 이강인은 후반에 교체로 나와 몇 차례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었다.

역대 최고령(33세 343일)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스트라이커 주민규(울산)도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으나, 공격 지역에서 매끄러운 연계플레이로 합격점을 받았다.

그럼에도 추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태국의 역습에 수비진이 허점을 드러낸 건 보완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태국 원정 최대 변수는 무더위와 태국 팬들의 일방적인 응원이다.

경기가 열리는 저녁 시간 온도는 섭씨 30도 초반, 습도는 70~80% 수준으로 덥고 습한 환경이다.

현지 팬들의 열기도 뜨겁다. 이미 매진됐던 한국-태국의 4차전 티켓값은 비공식 채널에서 10배나 뛰었다. 약 5만 명이 입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 매체 시암스포츠는 "경기 날에도 경기장 주변에 압도적인 팬들이 많이 보일 것이다. 가격이 더 치솟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원정에서 값진 무승부를 거둔 태국 선수들의 의지도 강하다. 태국축구협회는 홈에서 승리를 위해 선수단을 향한 포상 가능성도 언급한 상태다.

손흥민은 태국과 3차전이 끝나고 "(태국) 원정에서 홈 팬들의 아우와 열정적인 응원을 대비해야 한다. 분명히 어려운 경기일 것 같다"고 경계했다.

태국과 통산 상대 전적은 46전 30승8무8패다.

가장 최근 패한 건 26년 전으로, 1998년 방콕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연장 끝에 1-2로 졌다. 당시 경기장이 이번 대결을 펼치는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이다. /뉴시스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 회장기 전국대회 '승전보'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45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에서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 하야시다 리코가 승리에 만끽하고 있다.

여자 단식 금메달 · 혼합복식 동메달 획득

소프트테니스의 메카 순창군청 소프트테니스팀이 제45회 회장기 전국 소프트테니스 대회에서 승전보를 올렸다.

이번 대회는 순창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순창군의 해외 응병, 하야시다 리코 선수가 일반부 여자 단식 결승에서 여자 소프트테니스 전통의 강호 NH농협의 이민선 선수를 4대 2로 이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혼합복식에서도 리코 선수가 음성군청의 박재규 선수와 한 조가 되어 동메달을 추가 하는 등 올해 1월에 창단한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감독 김욱임)이 첫 대회를 출전해 2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이번 소프트테니스 대회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리코 선수는 소프트테니스의 종주국인 일본 출신으로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을 차지한 바 있는 선수로, 순창군에서 여자 소프트테니스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해외 선수다.

2021년까지 도쿄여자체육대학 소속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휩쓸어왔으나, 3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김 감독의 탁월한 지도력 및 선수 본인의 기량과 성실성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회복하여 본인의 실력을 당당하게 입증해 냈다.

한편, 향저우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인 순창군청 남자 소프트테니스팀의 윤형욱 선수는 지난 23일에 있었던 일반부 남자 단식 부문에서 컨

디션 난조를 보이며 수원시청의 전진민 선수에게 패배해 동메달 머물러야 했다.

순창군의 다크호스 전진민 선수는 준결승에서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수원시청의 김진웅 선수를 4대 1로 이겼으나, 결승에서는 윤형욱 선수를 이긴 수원시청의 전진민 선수에게 2대 4로 패해 아쉽게 복수에 실패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올해 1월에 창단해 훈련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순창군 소프트테니스가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 단체전 종합우승 '쾌거'

전주대 레슬링부

전주대학교 레슬링부는 지난 15~21일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 회장기전국레슬링대회에서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번 대회 그레코로만형에 출전한 63kg 소원(운동처방학과 4년), 67kg 손태양(운동처방학과 3년), 97kg 윤동현(운동처방학과 3년) 학생 선수가 금메달을, 또 72kg 오민서(운동처방학과 3년), 87kg 정상연(운동처방학과 4년) 학생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소원 학생 선수는 그레코로만형 63kg급에 출전해 압도적인 기량으로 1위를 차지하며 최우수선수상까지 수상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전주대 레슬링부는 전년도에 우수한 성적으로도 2위로 밀려났으나, 이번 회장기 전국레슬링 대회에 우승하면서



전주대학교 레슬링부는 지난 15~21일 철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2회 회장기 전국레슬링대회에서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사진은 전주대 레슬링부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2004년 이후 20년 만에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소원 선수는 "올해 첫 대회에서 우승해 기쁘다"며 "열정적으로 지도해주고 이끌어 준 김윤호 감독님께 감사 드리며, 올해 모든 대회 우승에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지도자상을 받은 김윤호 감독은 "20년 만에 종합우승을 차지해 기쁘다"며, 운동처방학과 교수님들에게도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배려해 주 감사하다"며 "올해 모든 대회 종합우승을 목표로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익산 개최 전국 초중고 유도대회 성료

4000여명 선수단 등 참여... 내달 1~3일 펜싱협회 2급 심판시험

익산시가 연이은 전국규모의 체육대회 개최와 펜싱 심판시험 개최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2회 춘계 전국초중고 유도연맹전'이 성황리에 종료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최대 규모의 초중고 유도대회로 약 4,000명의 선수단과 학부모, 임원이 방문해 지역경제 활성화

에 성과를 올렸다.

이어 다음 달에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익산종합운동장 민방위교육장에서 대한펜싱협회 2급 심판시험이 개최된다.

대한펜싱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이번 시험은 전국 각지에서 신청한 2급 심판 자격증 시험 응시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4월 1일 예매, 2일 플리데, 3일 사브

르 종목의 시험이 열리며, 시험 합격자에겐 심판 자격이 부여되고 국내 심판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

시 관계자는 "연이은 대회 유치를 통해 익산시가 스포츠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기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